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2월 25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18장 5절

설교제목 :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그 동안 헤어졌던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5절 하반절은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가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특히 현실적으로 실라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후원금이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고후11:9) 따라서, 그 전까지 천막을 제조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바울이 생계의 걱정없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온전히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면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선포를 전투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대했습니다.(6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능력과 칼을 들고 투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라는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신이 아니라 사람일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자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23에 보면 마태는 이사야 7:14을 인용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사야 7:14의 말씀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태만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지어졌으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요1:1-3) 그리고 바울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골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선포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투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히2:17-18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인간의 어둡고 처참한 자리보다 더 어둡고 처참한 자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바울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1:21) 다시 말해서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요3:16)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요1:12)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선포를 전투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대했습니다.(6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바울이 선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시험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